

인도네시아 식음료 산업의 성장

▶ 인도네시아 식품산업의 현황

- 인도네시아는 2015년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전체적으로 GDP가 지속 상승 중임. 2017년 기준 GDP는 3,604달러로 10년전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중산층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개인소비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단위 : 천\$, 톤)

번호	품목	2016	2017	2018	2019
1	Bread, Rice, Cereal	10.1%	10.7%	10.7%	10.7%
2	Oil, Fats	12.6%	13.1%	12.8%	12.7%
3	Meat, Poultry	10.5%	11.1%	11.1%	11.1%
4	Fish, Fish Product	10.4%	10.9%	10.9%	10.9%
5	Alcohol	3.8%	3.9%	4.5%	3.8%

▲ 식음료 산업 성장률 추정치 (출처: BMI Research, Marketline, EMIS. 2016)

-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월별식품소비지출 품목 중 곡류-제조식품-계란과 우유-생선-쇠고기-야채-담배-과일-음료재료-유지제품-국수류-양념-뿌리식물-견과류 순으로 소비가 되고 있으며 곡물류를 다른 식품보다 많이 섭취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식음료 산업을 성장시키는 요소들로는 많은 인구 기반과 정부의 인프라 산업육성정책에 기초한 급속한 도시화로 꼽을 수 있으며, 2050년에는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됨. 도시 생활은 육류, 계란, 과일, 포장식품 등의 소비를 증진시킬 것임
-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보유국가로서 ‘이슬람 경제’를 대표하는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음. 이슬람 샤리아 율법에 맞는 원재료, 가공, 보관, 포장, 유통, 판매 및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방식까지를 포함한 할랄제품 절차를 거친 제품을 할랄제품이라고 하는데, 이슬람 경제 영역에서는 할랄푸드, 할랄화장품, 할랄의약품 등이 가시적인 할랄제품으로 가장 대표적임

(단위 : 10억달러, 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식품 판매액	130.8	140.7	157.4	176.1	197.4
비할랄 인증제품 판매액	111.2	105.5	87.0	79.2	59.2
할랄 인증제품 판매액	19.6	35.2	70.4	96.9	138.2

▲ 할랄 및 비할랄 식품 판매액 (출처: BMI, IPSOS)

▶ 인도네시아 식품기업 현황과 주요 품목

- 인도네시아에는 1,572,457개 식품회사와 47,440개 음료 회사가 있으며 규모별로 소상공 또는 소규모의 회사가 1,614,149개가 있고, 대규모 또는 중간규모회사가 5,748개가 있음. 이중 식품제조회사 주요 5개 회사는 1위 Indofood Sukses Makmur, 2위 Unilever Indonesia, 3위 Purimas Sasmita, 4위 Sinar Mas Agro Resource & Tech, 5위 Indofood Cbp Sukses Makmur 임
- PT.Indofood Sukses Makmur

인도푸드 회사는 인도네시아 인스턴트라면 시장에서 ‘인도미’ 브랜드로 71%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음.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소비제품, 보가사리(밀가루 제조분야), 농업분야 비즈니스, 유통 등 크게 4개 분야로 사업영역이 있음. 인스턴트라면 외 유제품, 스낵, 계절용 음식, 유지 제품 등의 시장지배력이 있고 연구개발에도 활발히 투자하고 있음. 본사는 자카르타에 있으며 말레이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나이지리아, 시리아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해 있음



▲ 인도푸드 식품

- 인도네시아 중산층의 성장과 소매식품 가계확대에 따라 식품 소비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추정됨. 쌀은 인도네시아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쌀 수확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며, 이에 빵, 계란, 육류, 유제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BMI 연구소는 쌀이 2020년 까지 연평균 1.7-1.8%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유로모니터는 국수(Noodle) 시장이 2014-2019년 동안 연평균 7.3%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음.
- 고소득 층일수록 건강한 소비를 위해 유지류 사용이 줄어들거나 좀 더 건강한 식용유로 대체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인구의 다수 소비자들은 좀 더 가격이 싼 식물성 기름을 소비하기 시작함. 시간이 부족한 소비층은 길거리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으며, 전 세계 팜 오일 10대 생산 국가 중 인도네시아의 비율이 49%임.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의 유지류 분야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 인도네시아 도시별 식품소비현황

- 2016년 MARS.EMIS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도시별 인당 월별식품소비지출은 메단-꾸방-바담-수라바야-팔렘방-쁘간baru-발리-자카르타 등의 식품시장 규모가 제일 큰 도시로 명명될 수 있음. 다만 인도네시아 식품 시장에 대한 이해는 도시별 식품 소비현황과 패턴을 이해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메단의 경우 1순위 소비가 생선 종류이며 자카르타의 경우 1순위 소비 분야가 제조식품임

(단위 : %)

구분	수마트라	자바	발리, 누사틍가라	깔리만판	동인도네 시아	평균
Grains	15.4	15.6	18.1	17.6	19.4	17.22
Delicatessen	13.2	14.1	11.1	13.9	16.4	13.74
Fish et al.,	11.1	9.9	12.3	10.2	9.0	10.50
Vegetables	10.2	7.2	5.3	5.1	6.1	6.78
Eggs and Milk	9.2	10.3	11.5	13.5	8.6	10.62
Meat	8.6	9.4	14.4	6.5	6.9	9.16
Cigarettes	8.5	5.6	5.2	7.2	6.0	6.50
Fruits	5.1	7.3	4.7	5.5	4.8	5.48

▲ 인도네시아 전역 월별 식품 소비지출 현황

* 출처 : Liputan6 URL : www.news.liputan6.com

EMIS 「Indonesia Food and Beverage Sector 2016/2017」 (2016.07.01.)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인도네시아 식음료 산업 현황과 전망」 (2016.11.01.)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Consumption Expenditure of Population of Indonesia by Province」

URL : www.bps.go.id (2017.12.17.)

▶ 시사점

- 한국의 인도네시아 농식품 전체 수출액은 2016년 에서 2017년 불로 13.9% 증가하였고 5년 동안 평균 3.8% 증가하였음. 2017년 주요 증가 품목은 이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식음료 시장이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수도인 자카르타를 중심으로만 고려하였다면, 앞으로는 도시별 맞춤형 시장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단위 : 천\$, 톤)

번호	품목	2016	2017	증감률
1	농산물-커피류	128,278	146,439	14.2%
2	농산물-면류	12,220	15,247	24.8%
3	농산물-연초류	5,460	12,438	127.8%
4	농산물-음료	4,488	7,411	65.1%
5	농산물-당류	6,032	5,705	-5.4%

▲ 한국의 인도네시아 식품수출 상위 5대 품목

- 앞으로 2019년 할랄제품인증법에 따라 향후 할랄인증식품이 비할랄인증식품 비중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 기존 수출품목뿐만 아니라 비할랄 또는 할랄식품 모두 인도네시아 시장변화에 따른 전략이 필요함